가라카미 유적

이키 북서부, 가타나에 만 근처 언덕 위에 있는 가라카미는 기원 전후에 섬에서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. 이 마을 주민들은 어업, 수렵, 철공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

쇳조각과 용광로 유구 등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볼 때, 가라카미 마을 사람들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 본토의 철 교역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본보다 일찍 철 생산 기술이 발달했던 한반도에서 철 소재를 입수하여 이를 개량, 보강한 뒤 규슈 등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. 가라카미와 한반도의 관계는 마을 터에서 발견된 한반도산 토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집고양이 뼈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, 한반도는 일본에 고도의 제철 기술뿐만 아니라 친숙한 반려동물을 전하는 역할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